

보도시점 2026. 6. 19.(금) 오전 배포 2026. 6. 18.(목) 09:00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 -

주요 내용

※ 연금저축(Pension Savings Account) : 소득에 따라 납입액(최대 연 600만원)에 세액공제(13.2~16.5%) 적용,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혜택(중도인출시 페널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가입가능

1 (적립금 198.2조원)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 적립금이 전년(178.9조원) 대비 약 20조원 증가(+10.8%)하여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 적립금*(61.3조원)이 전년 대비 50.7%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보험은 감소세

* 적립금(조원) : ('23년) 29.5 → ('24년) 40.7(+37.8%) → ('25년) 61.3(+50.7%)

※ 연금저축보험 114.1조원, 연금저축펀드 61.3조원, 연금저축신탁 13.8조원 順

○ 총 가입자 수는 840.3만명으로 전년대비 76.1만명(+10.0%) 증가

2 (수익률 10.6%) 판매 이후 누적수익률 대비 '25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

○ 연금저축상품의 '25년 연간수익률은 10.6%, 판매시점부터의 누적수익률은 5.5%로, 전년(3.7%) 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상승*(+6.9%p)

* 단, '25.4분기부터 수익률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참고 목적으로 기재)

- 이는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ETF의 수익률(연간수익률 29.3%)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3 (유의사항)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을 필요

○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최근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 후 페널티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하므로 가입 전 개인의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성향 등을 고려할 필요

4 (향후계획) 통합연금포털 및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해 연금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설계지원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눈에 살펴보는 2025년 연금저축

1 연금저축 현황



① 적립금 현황(단위 : 조원)

◦ 상품별 적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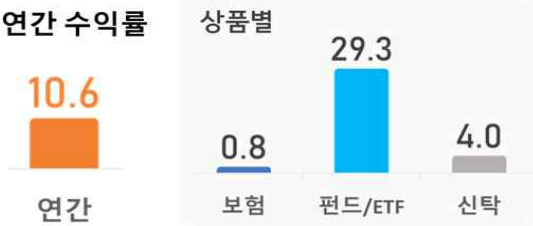


◦ 판매회사별 적립금



② 수익률 현황(단위 : %)

◦ 연간 수익률



◦ 누적 수익률



2 가입자 및 가입예정자를 위한 유의사항

△ 연금저축 가입시

- ☑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 시 페널티* 등 고려
 - * 연금 외 수령으로 기타소득세(16.5%) 부과 등
- ☑ 상품별 특성을 비교한 후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
 - * 연금상품 비교시 통합연금포털 內 '상품 비교' 공시 메뉴 활용

△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 ☑ 페널티 부과 방지 등을 위해 연금저축상품 변경 시 계좌이체 제도* 이용
 - * 연금 수령전 다른 계좌 이체시 중도 인출로 보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
- ☑ 단,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 (전체가 아닌 일부 이체는 제한 등)
- ☑ 계좌이체 전, 기존상품과 신규(변경)상품 비교 필수

I. 적립금
198.2조

적립금 200조 돌파 목전..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 2025년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원으로 전년(178.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0.8%)하며 2023년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 추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적립금(조원)	160.2	160.1	168.0	178.9	198.2
증가율(%)	5.1	△0.1	4.9	6.5	10.8

- 적립금뿐만 아니라 납입액, 계약건수, 가입자도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납입액*) 13.5조원으로 전년(11.4조원) 대비 2.1조원 증가(+18.1%)하였습니다.

* 납입액(조원) : ('23년) 9.4 → ('24년) 11.4(+21.2%) → ('25년) 13.5(+18.1%)

- (계약건수*) 1,079.6만건으로 전년(971.7만건) 대비 107.9만건 증가(+11.1%) 하였으며, 특히 신규 계약건수(144.3만건)가 크게 증가(+51.9%)하였습니다.

* 계약건수(만건) : ('23년) 912.3 → ('24년) 971.7(+6.5%) → ('25년) 1,079.6(+11.1%)

- (가입자수*) 총 840.3만명으로 전년(764.2만명) 대비 76.1만명 증가(+10.0%) 하였고, 연령별로는 4~50대의 비중(50.5%)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20세 미만의 가입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53.4%)

* 가입자(만명) : ('23년) 722.4 → ('24년) 764.2(+5.8%) → ('25년) 840.3(+10.0%)

- (상품별) 연금저축보험 114.1조원(57.6%), 연금저축펀드 61.3조원(30.9%), 연금저축신탁 13.8조원(6.9%), 연금저축공제보험 9.0조원(4.6%) 순으로

- 연금저축펀드는 증시호황에 따라 신규계약 및 계좌이체(수관)가 증가하는 등 계약건수*가 증가하며 전년(40.7조원) 대비 적립금이 크게 증가(+20.6조원, +50.7%)하였고,

* 연금저축펀드 계약건수(만건) : ('23년) 375.8 → ('24년) 455.8(+21.3%) → ('25년) 586.3(+28.6%)

- 전체 연금저축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비중(%) : ('23년) 17.6 → ('24년) 22.7(+5.1%p) → ('25년) 30.9(+8.2%p)

- 연금저축보험은 전체 적립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계약건수* 및 적립금**이 감소하였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계약건수(만건) : ('23년) 427.8 → ('24년) 411.3(△3.9%) → ('25년) 393.1(△4.4%)

**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조원) : ('23년) 115.4 → ('24년) 115.5(+0.1%) → ('25년) 114.1(△1.2%)

연금저축 상품별 적립금

구분	2023	2024	2025	증가율(%)	구성비(%)
적립금(조원)	168.0	178.9	198.2	10.8	(100.0)
보험	115.4	115.5	114.1	△1.2	(57.6)
펀드	29.5	40.7	61.3	50.7	(30.9)
신탁	15.4	14.7	13.8	△6.4	(6.9)
공제	7.7	8.0	9.0	11.9	(4.6)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되어 적립금이 지속 감소

- (판매회사별) 보험회사 114.3조원(57.7%), 금융투자회사 55.4조원(27.9%), 은행 19.5조원(9.8%), 공제기관 9.0조원(4.6%) 순으로

- 연금저축펀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권역 대비 금융투자회사*의 적립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회사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펀드 55.3(99.9%), 연금저축신탁 0.1(0.1%)

-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이 감소하며 보험회사*의 적립금도 감소하였으며,

* 보험회사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보험 114.1(99.9%), 연금저축펀드 0.2(0.1%)

- 은행*의 경우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감소하였으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증가하며, 전체 적립금이 증가하였습니다.

* 은행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신탁 13.7(70.0%), 연금저축펀드 5.8(30.0%)

연금저축 판매회사별 적립금

구분	보험	펀드	신탁	공제	합계	구성비(%)
적립금(조원)	114.1	61.3	13.8	9.0	198.2	(100.0)
보험회사	114.1	0.2	-	-	114.3	(57.7)
생명보험사	75.1	0.2	-	-	75.3	(38.0)
손해보험사	39.0	-	-	-	39.0	(19.7)
금융투자회사	-	55.3	0.1	-	55.4	(27.9)
은행	-	5.8	13.7	-	19.5	(9.8)
공제기관	-	-	-	9.0	9.0	(4.6)

II. 수익률
10.6%

누적수익률 대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특히 펀드/ETF의 수익률 급등

☞ 2025.4분기부터 **상품별 특성에 맞는 수익률 기준¹⁾ 및 공시기준²⁾**이 도입됨에 따라, **상품별 수익률을 바탕으로 추이를 분석**

- 1) (보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펀드/ETF) 수정기준가 수익률, (신탁) 배당률
- 2) (보험)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펀드/ETF, 신탁)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 2025년 연금저축상품 연간수익률*은 10.6%, 누적수익률은 5.5%로, 전년 (3.7%) 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상승****(+6.9%p)하였습니다.

* **연간수익률** 산정 시 펀드/ETF 및 신탁은 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을 적용하고 보험은 공시기준이 다르므로 **누적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 단, '25.4분기부터 수익률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수익률과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으며, 전년도 대비 수익률 비교(증가율)는 **단순 참고 목적**으로 제공

□ **(펀드/ETF)** 펀드/ETF의 연간수익률(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29.3%**, 누적수익률은 **14.3%**이며,

○ 상품별로 구분하면 펀드는 연간수익률 **31.3%**, 누적수익률 **8.1%**이며, ETF는 연간수익률 **27.4%**, 누적수익률 **19.9%**입니다.

○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수익률이 급등하여 장기(3년 이상) 수익률 대비 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 연평균 수익률 : (1년) 29.3%, (5년) 10.3%, (10년) 8.8%

□ **(보험)** 보험의 누적수익률은 **0.8%**이며,

○ 보험은 가입 초반에 수수료가 집중됨에 따라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 (3년) △0.7% → (10년) 0.8%(+1.5%p)

□ **(신탁)** 신탁의 연간수익률은 **4.0%**이며, 누적수익률은 **3.3%**입니다.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구분	보험	펀드/ETF	펀드	ETF	신탁	전체
연간수익률(%)	0.8	29.3	31.3	27.4	4.0	10.6
누적수익률(%)	0.8	14.3	8.1	19.9	3.3	5.5

※ 통합연금포털에 공시 중인 연금저축상품(01년 이후 판매) 수익률을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

III 유의사항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으세요!

- 연금저축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과 함께 3층을 구성하는 연금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연금저축펀드 신규가입 또는 다른 상품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합니다.
- 연금저축상품 가입(신규/추가)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기존상품에 대한 계좌이체(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 개인의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저축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 ① 연금저축의 혜택 뿐만 아니라 페널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 혜택이 있습니다.
 - 다만 가입 후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할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 *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내 중도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 단, 가입 초반에는 사업비 등 수수료에 따라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낮을 수 있음

- 또한 **운용수익**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시 공시이율의 **최저보장이율**,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연금액에도 반영되어,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보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 **(연금저축펀드)**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만큼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손실(원금 비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가입 **채널(대면·비대면)**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수수료율** 등을 참고하여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6.5.22.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주요 판매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적립식
적용금리	공시이율	실적배당
원금보장	보장	비보장
예금자 보호	보호	비보호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

2 연금저축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

1 연금저축 변경 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 해지** 후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페널티**(기타소득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 수령조건*** 충족을 위해 기존 연금저축계좌 **가입일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 이용 시 **가입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 제외)

** 연금계좌를 신규 설정하여 잔액이 없고 종전 연금계좌로부터 전액 이체하는 경우 이체하는 계좌, 이체받는 계좌의 가입일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

② 단,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상품에 따라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❶ 연금수령 중인 계좌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 ❷ 계좌 내 일부 금액의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계좌로의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 ❸ '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 ❹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 일부 계좌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③ 계좌이체 신청 전 꼭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을 비교해보세요.

- 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품별 판매하는 회사, 수익률 및 수수료율 등은 통합연금포털의 연금 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비교하여 참고해볼 수 있으며,
 -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고정금리 여부, 최저보증이율(변동금리 상품), 사업비 비율, (펀드)가입 채널에 따른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비교” 화면

(단위: 백만원, %)

자산운용사	상품명	상품유형	위험등급	설정일	판매여부	순자산 총액	연평균 수익률					누적 연평균수익률	연평균 수수료율
							1년	3년	5년	7년	10년		
AA	BB	주식형	2	2010-05-15	판매	2,478,780	24.02	28.01	18.45	22.15	20.38	18.85	0.172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연금저축 비교공시 >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 '25.4분기 이후

※ 동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재정경제부·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IV
향후 계획

연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 및 가입 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1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은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통합연금포털 개편을 진행(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퇴직연금 500조 원 시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습니다.」(26.6.5. 보도) 참고

- 개편 과정에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고,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여 통합연금포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 「퇴직연금 가이드북」

-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이드를 제공하여 초보투자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이드북」 제작을 진행(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해 연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가입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2663)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책임자	실 장	김기복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석진우	(02-3145-5186)
		담당자	선 임	서 정	(02-3145-5193)



2025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26. 6.



연 금 감 독 실
[연금혁신팀]

목 차

I. 적립금 현황	1
II. 계약 현황	3
1. 가입자수	3
2. 계약건수	4
3. 신규 및 해지 계약	5
III. 납입 및 연금 수령	7
1. 납입	7
2. 연금 수령	8
IV. 수익률	9
<붙임 1> 개인연금제도 개요	10
<붙임 2>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적립금 및 점유율	11

■ '25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원(10.8% ↑)

▶ 상품별로는 보험(57.6%) > 펀드(30.9%) > 신탁(6.9%) > 공제(4.6%)

▶ 판매회사별로는 보험(57.7%) > 금융투자(27.9%) > 은행(9.8%) > 공제(4.6%)

□ (전체) '25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원으로 전년(178.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0.8%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증감치(조원) 및 증가율: ['23말] 7.9(4.9% ↑) → ['24말] 10.9(6.5% ↑) → ['25말] 19.3(10.8% ↑)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말	'24년말	'25년말	증감치	증가율
연금저축 합계	168.0	178.9	198.2	19.3	10.8
- 舊개인연금*	43.1	43.4	43.7	0.3	0.8
- 연금저축	124.9	135.5	154.5	19.0	14.0

* '94.6월~'00.12월 기간중 판매되었던 상품

□ (상품별) 전체 198.2조원 중 보험이 114.1조원(57.6%)을 차지하고 있으며, 펀드 61.3조원(30.9%), 신탁 13.8조원(6.9%), 공제 9.0조원(4.6%) 順

○ 보험은 전년(115.5조원) 대비 1.4조원 감소(1.2% ↓)하며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 증감치(조원) 및 증가율: ['23말] 1.5(1.3% ↑) → ['24말] 0.1(0.1% ↑) → ['25말] △1.4(1.2% ↓)

○ 펀드는 전년(40.7조원) 대비 20.6조원 증가(50.7% ↑)하며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전체 적립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비중(%) : ['23말] 17.6 → ['24말] 22.7(5.1%p ↑) → ['25말] 30.9(8.2%p ↑)

○ 신탁은 전년(14.7조원) 대비 0.9조원 감소(6.4% ↓)하였으며, '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되며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

* 증감치(조원) 및 증가율: ['23말] △0.5(3.0% ↓) → ['24말] △0.7(4.9% ↓) → ['25말] △0.9(6.4% ↓)

상품별 적립금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말	'24년말	'25년말			구성비
				증감치	증가율	
보 험	115.4	115.5	114.1	△1.4	△1.2	(57.6)
펀 드	29.5	40.7	61.3	20.6	50.7	(30.9)
신 탁	15.4	14.7	13.8	△0.9	△6.4	(6.9)
공 제	7.7	8.0	9.0	1.0	11.9	(4.6)
합 계	168.0	178.9	198.2	19.3	10.8	(100.0)

- **(판매회사별)** 보험회사 114.3조원(57.7%), 금융투자회사 55.4조원(27.9%), 은행 19.5조원(9.8%), 공제기관 9.0조원(4.6%) 順
 - **(보험회사)** 생보사 75.3조원, 손보사 39.0조원
 - 적립금 상위 3개사는 삼성생명(27.3조원), 삼성화재(21.5조원), 한화생명(13.3조원)으로, 동 3개사가 적립금의 54.3%를 차지
 -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54.6조원, 자산운용사 0.8조원
 - 적립금 상위 3개사는 미래에셋증권(19.7조원), 삼성증권(9.8조원), 한국투자증권(7.2조원)으로, 동 3개사가 적립금의 66.2%를 차지
 - **(은행)** 시중은행 14.3조원, 특수은행 4.6조원, 지방은행 0.6조원
 - 적립금 상위 3개사는 국민은행(5.1조원), 하나은행(3.9조원), 신한은행(3.5조원)으로, 동 3개사가 적립금의 64.5%를 차지
 - **(공제기관)** 우체국 5.8조원, 새마을금고 21조원, 신협 0.6조원, 수협 0.5조원

판매회사별 적립금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보 험	펀 드	신 탁	공 제	합 계	구성비
보 험 회 사	114.1	0.2	-	-	114.3	(57.7)
생명보험사	75.1	0.2	-	-	75.3	(38.0)
손해보험사	39.0	-	-	-	39.0	(19.7)
금융투자회사	-	55.3	0.1	-	55.4	(27.9)
은 행	-	5.8	13.7	-	19.5	(9.8)
공 제 기 관	-	-	-	9.0	9.0	(4.6)
합 계	114.1	61.3	13.8	9.0	198.2	(100.0)

II

계약 현황

- ▣ '25년말 가입자수는 840.3만명으로 76.1만명 증가(10.0% ↑)
- ▣ '25년말 계약건수는 1,079.6만건으로 107.9만건 증가(11.1% ↑)
- ▶ 신규계약은 144.3만건(51.9% ↑), 해지계약은 28.0만건(14.7% ↑)

1 가입자수

- (전체) '25년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840.3만명으로 전년(764.2만명) 대비 76.1만명 증가(10.0% ↑)

* 은행연합회가 관리 중인 소득·세액공제 납입한도 등록 인원수 기준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3년말	'24년말	'25년말	증감치	증가율
연금저축 합계*	7,224	7,642	8,403	761	10.0
- 舊개인연금	1,453	1,426	1,404	△22	△1.5
- 연금저축	6,205	6,640	7,421	781	11.8

* 중복 가입자로 인해 舊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단순 합계치와는 차이

- (연령별) 4~50대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420.3만명, 50.0%)을 차지하나, 증가율은 20세 미만의 가입자에서 가장 크게 증가(53.4% ↑)
- '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400만원 → 600만원)한 이후 모든 연령대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개정 이전에는 50세 이상 가입자 등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추가

연령별 가입자 분포

(단위 : 천명, %)

구 분	20세 ↓	2~30대	4~50대	61~65세	65세 ↑	합 계
'23년	53	1,864	3,848	744	715	7,224
'24년	88	2,013	3,942	776	823	7,642
'25년	135	2,291	4,203	813	961	8,403
증가율	53.4	13.8	6.6	4.8	16.8	10.0
구성비	(1.6)	(27.3)	(50.0)	(9.7)	(11.4)	(100.0)

- **(근로소득별)** 年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 가입률은 1.5%이나, 1억 이상 가입률은 49.0%에 달하며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근로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

(단위 : %, 천명)

구 분	2천↓	2~4천	4~6천	6~8천	8천~1억	1억원↑	전 체
가입률(B/A)	0.1	2.6	10.3	21.4	32.8	49.0	10.3
가입자수(B)	6	186	392	429	398	758	2,169
급여소득자수(A)	5,357	7,132	3,826	2,007	1,211	1,546	21,079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기준('25년 국세통계연보)

2 계약건수

- **(전체)** '25년말 기준 계약건수는 1,079.6만건으로 전년(971.7만건) 대비 107.9만건 증가(11.1% ↑)

- **(상품별)** 펀드가 586.3만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중 54.3%을 차지하였으며, 보험 393.1만건, 신탁 62.6만건, 공제 37.6만건 順

- 보험의 경우 계약건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며, 계약건수가 전년(411.3만건) 대비 18.2만건 감소(4.4% ↓)

* 증가율(%): ['23말] △2.9 → ['24말] △3.9(1.0%p ↓) → ['25말] △4.4(0.6%p ↓)

- 펀드는 계약건수가 전년(455.8만건) 대비 130.5만건 증가(28.6% ↑)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증가율(%): ['23말] 10.7 → ['24말] 21.3(10.6%p ↑) → ['25말] 28.6(7.3%p ↑)

상품별 계약건수 현황

(단위 : 천건, %)

구 분	'23년말	'24년말	'25년말			
				증감치	증가율	구성비
보 험	4,278	4,113	3,931	△182	△4.4	(36.4)
펀 드	3,758	4,558	5,863	1,305	28.6	(54.3)
신탁	714	669	626	△43	△6.4	(5.8)
공 제	373	377	376	△1	△0.1	(3.5)
전 체	9,123	9,717	10,796	1,079	11.1	(100.0)

가. 신규계약

- **(전체)** '25년말 기준 신규계약은 총 144.3만건으로 전년(95.0만건) 대비 49.3만건 증가(51.9% ↑)
- **(상품별)** 보험 및 공제상품의 신규계약은 전년 대비 각각 1.0만건 (12.1% ↓), 0.3만건(14.1% ↓) 감소한 한편,
 - 펀드는 전년(84.3만건) 대비 50.7만건 증가(60.1% ↑) 하였으며, 대부분 (98.2%)이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
 - 판매회사별로는 카카오페이증권 31.7만건(23.5%), 삼성증권 31.0만건 (23.0%), 미래에셋증권 27.6만건(20.5%) 등 順

상품별 신규계약 현황

(단위 : 천건, %)

구 분	'24년	'25년	증감치	증가율	구성비
보 험	85.1	74.8	△10.3	△12.1	(5.2)
펀 드	843.2	1,349.8	506.6	60.1	(93.5)
공 제	21.9	18.8	△3.1	△14.1	(1.3)
전 체	950.2	1,443.4	493.2	51.9	(100.0)

판매회사별 신규계약 현황

< 보험 >

(단위 : 천건, %)

업 권	판 매 사	건수	구성비
생 보	삼성생명	22.9	(30.6)
생 보	한화생명	18.8	(25.1)
생 보	IBK연금	6.8	(9.1)
생 보	농협생명	5.5	(7.4)
...			
전 체		74.8	(100.0)

< 펀드 >

(단위 : 천건, %)

업 권	판 매 사	건수	구성비
증 권	카카오페이증권	317.5	(23.5)
증 권	삼성증권	310.2	(23.0)
증 권	미래에셋증권	276.5	(20.5)
증 권	한국투자증권	143.6	(10.6)
...			
전 체		1,349.8	(100.0)

나. 해지계약

- **(전체)** '25년말 기준 중도해지된 계약은 28.0만건으로 전년(24.4만건) 대비 3.6만건 증가(14.7% ↑)
- '24년말 계약(971.7만건) 기준 '25년 해지율은 2.9% 수준
- 중도해지 금액은 4.0조원으로 전년(3.6조원) 대비 0.4조원 증가(11.7% ↑)
- **(사유별)** 해지계약의 대부분(96.1%, 26.9만건)이 ①**임의해지**(전세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이며, 소득세법 상 중도해지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천재지변, 사망, 요양 등)는 3.9%(1.1만건)
 - ※ ①임의 해지 : 16.5%의 기타소득세 vs ②부득이한 사유 : 3.3~5.5%의 연금소득세

해지사유별 해지계약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해지계약 건수				해지금액			
	'24년	'25년	증가율	구성비	'24년	'25년	증가율	구성비
임의해지	233.6	269.4	15.3	(96.1)	31,259	33,046	5.7	(83.1)
부득이한 사유	10.7	10.9	1.3	(3.9)	4,327	6,700	54.8	(16.9)
전 체	244.3	280.3	14.7	(100.0)	35,586	39,746	11.7	(100.0)

※ '25년 연금저축계약 변동내역

- ◆ '25년 중 ¹신규계약(144.3만건)에 연금수령이 종료된 ²만기계약(6.3만건), ³해지계약(28.0만건) 등이 반영된 **연간 유효 순증계약은 107.9만건**
- ▶ 펀드는 130.5만건 순증한 반면, 보험 및 신탁은 각각 △18.2만건, △4.3만건씩 **순감**

(단위 : 천건, %)

구 분	'24년	'25년				'25년	증감치	구성비
		¹ 신규⊕	² 만기⊖	³ 해지⊖	기타*			
보 험	4,113	75	△46	△112	△99	3,931	△182	(36.4)
펀 드	4,558	1,350	△8	△134	97	5,863	1,305	(54.3)
신탁	669	-	△8	△20	△15	626	△43	(5.8)
공 제	377	18	△1	△14	△4	376	△1	(3.5)
전 체	9,717	1,443	△63	△280	△21	10,796	1,079	(100.0)

* 금융회사 간 계좌이체, 부활, 효력상실 등

Ⅲ

납입 및 연금 수령

- ▣ '25년중 납입액은 13.5조원(18.1% ↑), 연금수령액은 5.7조원(1.8% ↑)
- ▶ 계약당 납입액*은 339만원(22.9% ↑),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65만원(21.7% ↓)
- * 납입액이 "0원"인 계약을 제외한 계약당 납입액

1 납입

- (전체) '25년 중 총 납입액은 13.5조원으로 전년(11.4조원) 대비 2.1조원 증가(18.1% ↑)
- 계약당 납입액은 339만원으로 전년(316만원) 대비 23만원 증가
- (상품별) 펀드는 전년(5.9조원) 대비 2.9조원 증가(49.3% ↑)하였으나, 보험(10.4% ↓)·신탁(16.0% ↓)·공제(53.5% ↓)는 납입액이 감소

연간 납입액 현황

(단위 : 억원, 만원, %)

구 분	연간 납입액(억원)				계약당 납입액(만원)		
	'24년	'25년	증가율	구성비	'24년	'25년	증감치
보 험	43,456	38,915	△10.4	(28.9)	257.7	259.0	1.3
펀 드	59,271	88,482	49.3	(65.6)	400.7	423.9	23.2
신 탁	5,686	4,777	△16.0	(3.5)	299.2	297.8	△1.4
공 제	5,831	2,712	△53.5	(2.0)	223.3	117.1	△106.2
전 체	114,244	134,886	18.1	(100.0)	315.9	338.8	22.9

- (분포) 年 납입금액 700만원 이하가 대부분(93.0%)을 차지하고 있으며
- 4~7백만원 이하(984천건)는 전년 대비 280천건 증가(39.8% ↑)한 반면, 7~18백만원 이하(276천건)는 69천건 감소(19.9% ↓)하는 등 상반된 양상

납입금액별 계약건수 분포

(단위 : 천건, %)

구 분	1백 ↓	1~2백	2~3백	3~4백	4~7백	7~18백 ↓	합 계
'24년	830	781	588	342	704	345	3,590
'25년	1,049	781	537	339	984	276	3,966
증가율	26.4	0.02	△8.6	△1.0	39.8	△19.9	10.5
구성비	(26.5)	(19.7)	(13.5)	(8.5)	(24.8)	(7.0)	(100.0)

- (전체) '25년 중 연금수령액은 5.7조원으로 전년(5.6조원) 대비 0.1조원 증가(1.8% ↑)
-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65만원으로 전년(286만원) 대비 21만원 감소
- (상품별) 보험 4.1조원, 펀드 0.7조원, 신탁 0.6조원, 공제 0.3조원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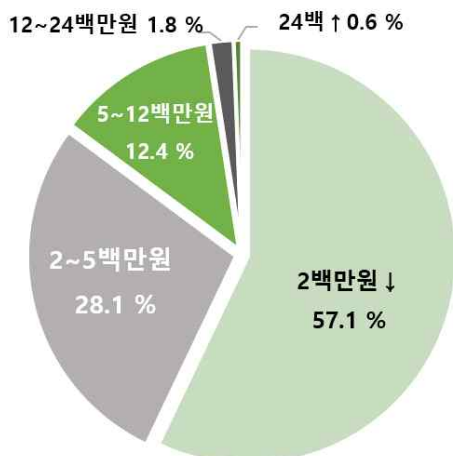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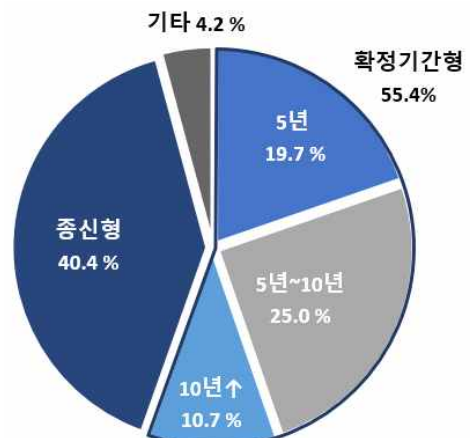
구분	연간 수령액(억원)			수령 계약수(천건)		계약당 수령액(만원)		
	'24년	'25년	증가율	'24년	'25년	'24년	'25년	증감치
보험	39,004	40,848	4.7	1,640	1,812	237.9	225.4	△12.5
펀드	8,724	7,039	△19.3	165	186	528.9	378.8	△150.1
신탁	6,594	6,512	△1.2	97	85	681.5	762.1	80.6
공제	1,755	2,679	52.6	60	73	290.7	368.8	78.1
전체	56,077	57,078	1.8	1,962	2,156	285.8	264.7	△21.1

- (수령금액) 年 수령액 2백만원 이하가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5백만원 28.1%, 5~12백만원 12.4% 등 順
- (수령형태) 연금 개시 후 수령형태는 확정기간형 55.4%, 종신형 40.4%, 확정금액형 3.0%, 미지정 1.1%, 혼합형 0.1% 順
-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 중 장기수령계약(종신형 및 10년 초과) 비중은 51.1%로 전년(49.5%) 대비 1.6%p 증가

수령금액별 분포



수령형태별 분포



IV

수익률

■ '25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연간 10.6%, 누적 5.5%

- ▶ 상품별 연간수익률은 보험(0.8%), 펀드/ETF(29.3%), 신탁(4.0%)
- ▶ 상품별 누적수익률은 보험(0.8%), 펀드/ETF(14.3%), 신탁(3.3%)

□ (전체) '25년 중 연간수익률*은 10.6%, 누적수익률은 5.5%

* 연간수익률 산정 시 펀드/ETF 및 신탁은 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을 적용하고 보험은 공시기준이 다르므로 누적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 '25.4분기 이후 연금저축상품별 수익률 산정 및 공시 기준

① 수익률 산정기준

- ▶ **보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적립률), **펀드/ETF** 수정기준가 수익률, **신탁** 배당률

② 수익률 공시기준

- ▶ **보험** :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 ▶ **펀드/ETF** 및 **신탁** :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 (보험) 보험의 누적수익률은 0.8%

- 가입 초반에는 사업비가 부과됨에 따라 납입금 대비 적립금이 적을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 할수록 수익률이 증가*하는 편

*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 (3년) △0.7% → (5년) 0.2% → (10년) 0.8%

□ (펀드/ETF) 펀드/ETF의 연간수익률은 29.3%, 누적수익률은 14.3%

- 상품별로 구분하면 펀드는 연간수익률 31.3%, 누적수익률 8.1%이며, ETF는 연간수익률 27.4%, 누적수익률 19.9%
-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인해 수익률이 상승하여, 장기(3년 이상) 연평균 수익률 대비 최근 1년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편*

*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 연평균 수익률 : (1년) 29.3%, (5년) 10.3%, (10년) 8.8%

□ (신탁) 신탁의 연간수익률은 4.0%, 누적수익률은 3.3%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연환산) 현황

(단위 : %)

구분	보험	펀드/ETF	펀드	ETF	신탁	전체
연간수익률	0.8	29.3	31.3	27.4	4.0	10.6
누적수익률	0.8	14.3	8.1	19.9	3.3	5.5

* 통합연금포털에 공시 중인 연금저축상품('01년 이후 판매) 수익률을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

붙임1

개인연금제도 개요

□ 현행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금융상품으로 연금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저축)과 비적격(비과세연금)으로 구분

① 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 :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

* 1) 5년 이상 불입, 2) 55세 이후 인출 개시,
3) 연간 인출한도(1,500만원)를 충족하여 10년 이상 분할 인출

- **(납입 시)** 납입액에 대해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세액공제) 종합소득 4.5천만원(근로소득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와 합산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外 수령시)** 연금수령액이 연간 인출한도(1,500만원)를 초과하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外 수령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상품별 연금저축 개요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주요 판매사	보험사, 은행, 공제기관	은행	증권사, 은행
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적용금리	공시이율	실적배당	실적배당
연금수령방법	확정기간, 종신(생보만)	확정기간	확정기간
예금자보호	○	○	X

* 연금저축신탁은 '18년부터 신규 판매 중단

② 비적격 개인연금(비과세 연금보험) :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험계약*

* 장기저축성 보험(납입기간 5년 & 유지기간 10년 & 월 150만원 ↓ 적립식 저축보험), 즉시연금(만기 10년 ↑ & 보험료 1억원 ↓)

붙임2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적립금 및 점유율

(단위 : 억원, %)

업 권	금융회사명	보 험	펀 드	신 탁	전 체	권역 내	시장 내
						구성비	구성비
생보 (21)	삼성생명	272,011.9	831.1	-	272,843.0	(36.3)	(13.8)
	한화생명	132,856.4	16.3	-	132,872.7	(17.7)	(6.7)
	교보생명	113,360.1	-	-	113,360.1	(15.1)	(5.7)
	농협생명	95,860.3	-	-	95,860.3	(12.7)	(4.8)
	미래에셋생명	23,953.4	620.3	-	24,573.7	(3.3)	(1.2)
	KDB생명	17,679.5	-	-	17,679.5	(2.4)	(0.9)
	흥국생명	16,505.7	-	-	16,505.7	(2.2)	(0.8)
	IBK연금	15,318.2	-	-	15,318.2	(2.0)	(0.8)
	신한라이프생명	14,316.5	-	-	14,316.5	(1.9)	(0.7)
	동양생명	10,807.5	-	-	10,807.5	(1.4)	(0.5)
	ABL생명	10,258.5	-	-	10,258.5	(1.4)	(0.5)
	푸본현대생명	9,253.5	-	-	9,253.5	(1.2)	(0.5)
	KB라이프생명	7,447.6	-	-	7,447.6	(1.0)	(0.4)
	DB생명	2,468.3	-	-	2,468.3	(0.3)	(0.1)
	하나생명	2,233.7	-	-	2,233.7	(0.3)	(0.1)
	IM라이프생명	2,213.3	-	-	2,213.3	(0.3)	(0.1)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2,141.3	-	-	2,141.3	(0.3)	(0.1)
	메트라이프생명	1,936.1	-	-	1,936.1	(0.3)	(0.1)
	라이나생명	101.6	-	-	101.6	(0.0)	(0.0)
	처브라이프생명	88.6	-	-	88.6	(0.0)	(0.0)
	AIA생명	31.4	-	-	31.4	(0.0)	(0.0)
생보 소계	750,843.4	1,467.7	-	752,311.1	(100.0)	(38.0)	
손보 (10)	삼성화재	215,121.5	-	-	215,121.5	(55.1)	(10.9)
	현대해상	61,430.9	-	-	61,430.9	(15.7)	(3.1)
	DB손해	40,423.3	-	-	40,423.3	(10.4)	(2.0)
	KB손해	38,143.1	-	-	38,143.1	(9.8)	(1.9)
	메리츠화재	15,560.1	-	-	15,560.1	(4.0)	(0.8)
	한화손해	9,830.9	-	-	9,830.9	(2.5)	(0.5)
	롯데손해	6,109.6	-	-	6,109.6	(1.6)	(0.3)
	흥국화재	2,960.7	-	-	2,960.7	(0.8)	(0.1)
	하나손해	557.4	-	-	557.4	(0.1)	(0.0)
	엠지손해	348.6	-	-	348.6	(0.1)	(0.0)
	손보 소계	390,486.1	-	-	390,486.1	(100.0)	(19.7)
은행 (16)	국민은행	-	15,701.3	35,630.2	51,331.4	(26.3)	(2.6)
	하나은행	-	26,994.6	11,925.3	38,919.9	(20.0)	(2.0)
	신한은행	-	5,774.8	29,710.1	35,484.9	(18.2)	(1.8)
	농협은행	-	2,410.5	31,973.5	34,384.0	(17.6)	(1.7)
	우리은행	-	3,983.9	10,375.2	14,359.1	(7.4)	(0.7)
	기업은행	-	2,092.9	4,658.9	6,751.8	(3.5)	(0.3)
	부산은행	-	-	4,460.0	4,460.0	(2.3)	(0.2)
	산업은행	-	-	3,565.6	3,565.6	(1.8)	(0.2)
	IM뱅크	-	-	1,815.6	1,815.6	(0.9)	(0.1)
	광주은행	-	845.7	44.1	889.8	(0.5)	(0.0)
	수협은행	-	290.8	489.9	780.7	(0.4)	(0.0)
	씨티은행	-	-	624.6	624.6	(0.3)	(0.0)
	SC은행	-	46.0	568.1	614.1	(0.3)	(0.0)
	경남은행	-	-	504.6	504.6	(0.3)	(0.0)
	전북은행	-	160.0	132.4	292.4	(0.1)	(0.0)
	제주은행	-	124.8	95.3	220.1	(0.1)	(0.0)
은행 소계	-	58,425.3	136,573.3	194,998.6	(100.0)	(9.8)	

업 권	금융회사명	보 험	펀 드	신 탁	전 체	권역 내	시장 내
						비중	비중
금융투자 (32)	미래에셋증권	-	197,326.2	-	197,326.2	(35.6)	(10.0)
	삼성증권	-	97,550.0	-	97,550.0	(17.6)	(4.9)
	한국투자증권	-	71,558.0	-	71,558.0	(12.9)	(3.6)
	NH투자증권	-	51,933.4	693.8	52,627.2	(9.5)	(2.7)
	KB증권	-	26,888.6	-	26,888.6	(4.9)	(1.4)
	키움증권	-	22,657.1	-	22,657.1	(4.1)	(1.1)
	하나증권	-	18,397.8	-	18,397.8	(3.3)	(0.9)
	신한투자증권	-	17,167.1	-	17,167.1	(3.1)	(0.9)
	우리투자증권	-	10,583.2	-	10,583.2	(1.9)	(0.5)
	한화투자증권	-	9,876.2	-	9,876.2	(1.8)	(0.5)
	KCGI자산운용	-	7,188.4	-	7,188.4	(1.3)	(0.4)
	유안타증권	-	4,650.1	-	4,650.1	(0.8)	(0.2)
	카카오페이증권	-	3,972.4	-	3,972.4	(0.7)	(0.2)
	대신증권	-	3,310.2	-	3,310.2	(0.6)	(0.2)
	신영증권	-	3,298.2	-	3,298.2	(0.6)	(0.2)
	IM증권	-	1,273.8	-	1,273.8	(0.2)	(0.1)
	DB증권	-	1,253.3	-	1,253.3	(0.2)	(0.1)
	SK증권	-	1,105.5	-	1,105.5	(0.2)	(0.1)
	현대차증권	-	864.4	-	864.4	(0.2)	(0.0)
	교보증권	-	782.3	-	782.3	(0.1)	(0.0)
	메리츠증권	-	492.3	-	492.3	(0.1)	(0.0)
	유진투자증권	-	418.1	-	418.1	(0.1)	(0.0)
	IBK투자증권	-	148.5	-	148.5	(0.0)	(0.0)
	한화자산운용	-	143.7	-	143.7	(0.0)	(0.0)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139.1	-	139.1	(0.0)	(0.0)
	한양증권	-	12.1	-	12.1	(0.0)	(0.0)
	케이프투자증권	-	6.0	-	6.0	(0.0)	(0.0)
	다올투자증권	-	2.2	-	2.2	(0.0)	(0.0)
	BNK투자증권	-	0.9	-	0.9	(0.0)	(0.0)
	부국증권	-	0.7	-	0.7	(0.0)	(0.0)
	리딩투자증권	-	0.1	-	0.1	(0.0)	(0.0)
	LS증권	-	0.1	-	0.1	(0.0)	(0.0)
금융투자 소계	-	553,000.0	693.8	553,693.8	(100.0)	(27.9)	
공제 (4)	우체국	57,801.2	-	-	57,801.2	(64.1)	(2.9)
	새마을금고	21,389.5	-	-	21,389.5	(23.7)	(1.1)
	수협	5,687.8	-	-	5,687.8	(6.3)	(0.3)
	신협	5,329.1	-	-	5,329.1	(5.9)	(0.3)
	공제 소계	90,207.6	-	-	90,207.6	(100.0)	(4.6)
총 계	1,231,537.1	137,267.1	612,893.0	1,981,697.2	(100.0)	(100.0)	